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81-115
<https://doi.org/10.29212/mh.2022..122.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김명섭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3.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4. 맺음말

초 록 1910~20년대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의 졸업생들은 많은 항일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고, 지키며 독립의식을 고양시켰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에는 1910년 창가집의 12장에 실린 애국가를 가사만 조금 달리했으며, 곡조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인 것으로 보인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조지아행진곡>(Marching Through Georgia)을, 신흥학우단 단가는 <스와니강> 원곡을 차용하고 <수절가>의 가사를 단의 나라 사랑·독립정신을 담아 바꿔 불렀다.

독립군가 중에는 일본 창가의 곡조를 차용해 애국적인 가사로 바

꾼 노래도 있는데, 이는 1914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 실린 노래를 가사 바꿔 불렀다. 그 사례로 <독립군>용진가는 일본 창가를, <조국 생각>은 일본 군가인 <전우>의 곡조를 빌려 애국적 가사로 바꿔 항일노래로 불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망명객들이 많이 불려 <3·1운동가>로 알려진 노래의 원전은 <도강가(渡江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6월 일본군의 침탈로 부득이 폐교하고 말았다. 이후 교장을 역임한 여준과 그의 제자로 교관을 지낸 오광선이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하기 위해 검성학교를 창설해 개교하였다. 검성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도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비롯해 <독립군가> 등을 자주 불렀다. 특히 학생들이 부른 항일노래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치일에 부른 <국치의 노래>, 운동회 때 부른 <야구>, 일본 군가의 곡조를 빌려 독립군의 군가로 부른 <승리의 행진곡> 등을 들 수 있겠다.

주제어 : 신흥무관학교, 검성학교, 항일노래, 창가, 독립군가

(원고투고일 : 2022. 1. 6,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1910년 8월 29일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의 산실로 1911년 6월 서간도 통화현(通化縣)의 합니하(哈泥河)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꼽을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는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1920년대 만주 독립전쟁을 이끈 군사적 요람인 동시에 서간도 지역 한인사회를 개척한 지역 중심체로, 나아가 근대 민족학교를 세우고 이끈 교육 중심지이기도 하다. 해외 독립기지 건설을 도모해온 이회영 6형제와 이상룡·이동녕·여준 등 신민회 인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과정과 학생모집,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교직원 및 졸업생들의 면면이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¹⁾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관련 인사들은 민족계몽 활동과 독립군 양성은 물론 서간도 지역 학교설립과 운영, 지역사회 문화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²⁾ 더욱이 신흥학교 졸업생과 신흥학우단

-
- 1)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종합적 연구성과로는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2) 신흥무관학교 교관이나 졸업생들에 대한 연구로는 박환, 「잊혀진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金昌煥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2012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尹起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 김민호, 「이범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3 ; 김주용, 「李章寧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2014 ; 박성순,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 학생모집의 경로와 거점」 『한국근현대사연구』 82, 2017 ; 박성순,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와 길림군정사연구-呂準을 중심으로 한 신흥무관학교 세력의 활동상에 주목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숭실사학』 45, 2020 ; 김명섭, 「오광선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군사』 121호, 2021.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은 학교 운영과 지역 계몽의 지도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인근 통화현(通化縣)과 유하(柳河縣) 일대의 소학교 교원으로 활약하면서 새로운 문명과 독립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³⁾

민족계몽의식과 항일 독립정신이 강렬했던 신흥무관학교와 신흥학우단 인사들이 어떤 교과과정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왔다. 또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애국가를 비롯해 당시 독립지사들이 부른 항일노래도 일부 소개되었다.⁴⁾ 하지만 아직 어떤 항일노래를 가르치고 불렀는지, 어떤 곡에 누가 작사를 했는지, 그 노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흥학교와 이를 이은 검성학교의 졸업생들이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이 학교들에서 가르치고 즐겨 부른 항일노래의 유형과 성격, 그 역할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꾀해 보고자 한다.

3)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 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만주연구』 24, 2017; 박성순, 「석주 이상룡의 「만주기사」 분석을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동양고전연구』 67, 2017 등을 참조.

4)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길태숙, 「재만조선인 항일투쟁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2008; 안병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2011; 신광호, 「항일전쟁 시기 중국 조선족 항일가요의 정서 연구」, 『국악교육』 33, 2012; 전호수,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 탐색」, 『동아연구』 38, 2019; 김수현, 「자료로 보는 애국가 그 첫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 82집, 2021.

2.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1910년 12월 31일 압록강을 건넌 이회영 6형제를 시작으로 안동 유림 이동녕(李東寧)·이상룡(李相龍)·김동삼(金東三) 일가를 비롯해 전국의 민족지사들이 속속 봉천성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서쪽 추가가(鄒家街)에 정착하였다. 이듬해인 1911년 3월 경학사(經學社)를 설립한 이 망명 지도자들은 초대 교장 이동녕과 교감 김달, 학감 윤기섭을 중심으로 그해 6월 신흥강습소를 운영하였다.

이어 일제의 폭정을 피해 서간도로 탈출해 오는 이주 한인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자, 학교 운영진은 경학사를 확대·발전시킨 부민단(扶民團)으로 재편하였다. 부민단은 1912년 가을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신흥강습소를 옮겨 본격적인 독립군 양성에 돌입했다. 혹한과 전염병, 마적의 습격 등으로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교직원과 학생들은 힘겨운 노력 끝에 1913년 5월 교사 낙성식을 갖고 본격 신흥무관학교로 규모와 체제를 갖추었다.⁵⁾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에서 고뢰산·청하자의 첩첩산중을 한참을 돌아 현재의 광화진(光華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km 떨어진 강가에 자리하였다. 훈강(波瀾江) 상류에 해당하는 합니하는 구릉진 산을 휘감으며 넓은 평야와 언덕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새였다. 교사와 연병장은 광화진 쪽에서는 물론, 합니하가 흐르는 곳에 나 있는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 적으로부터

5)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5, 12~15쪽.

터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전교생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의 일과는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혹한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행한 아침체조에 이어 청소와 세면을 마치면 식탁에 둘러앉아 조출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집합나팔 소리에 따라 조례가 시작되었고, 전 교직원인 배석한 조례식은 점명(點名)을 한 후 <애국가>를 불렀다. 당시 신흥무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애국가에 대해 석주 이상룡(李相龍)의 며느리 허은(許銀, 1907~1997)은 “석주 어른이 지은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애국가>

화려강산 동반도 / 우리 제국이요

품질 좋은 단군 자손 / 우리 국민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 우리 나라 우리들이 길이 보전
하세” 6)

허은이 기억하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의 가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애국가 중 1910년 손봉호(孫鳳鎬)가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창가집』 제12장에 실린 <애국가(愛國歌)>와 가장 유사하다. 그 가사 원본은 다음과 같다.⁷⁾

6) 허은 구술·변창에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90쪽.

7) <제12장 애국가> 『손봉호창가집』, 1910년 필사본.

<애국가>

<p>가사원본</p>	
<p>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華麗江山 東半島(는)/ 우리帝國이요 四千餘年 檀君子孫 / 우리 國民일세 (후렴)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 大韓사름 大韓으로 기리 保全호세 2. 愛國하는 義兵熱誠 / 白頭山과 갖고 忠君하는 一片丹心 / 東海갓치 김히 3. 二千萬人 오죽흔말 / 나라사랑호야 士農工商 貴賤업시 / 職分을 다호세 4. 우리大韓 우리皇上 / 皇天이 도우사 國民同樂 萬萬歲에 / 太平獨立호세.

이 <애국가>는 진명학교 음악교사인 김인식(金仁湜)이 1910년 『보충친목회월보(普中親睦會月報)』 6호에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조에 본인이 가사를 써서 악보로 게재한 곡의 1절 가사와 <무궁화가>의 후렴으로 만들어 창가집에 실었다. 애국가의 곡조는 스코틀랜드 가곡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인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음을 알 수 있다.⁸⁾

8) 김수현, 「사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 82집, 2021, 41~42쪽.

애국가를 부르는 생도들 앞에서 1913년 당시 교장인 여준(呂準, 1862~1932)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 감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3·1절 행사 때나 8월 29일 국치일, 10월 1일 개천절 등 기념행사 때에 의례 식전에 불렀다.

애국가 제창에 이어 생도들은 앞산 뒷산이 마주 올리도록 우렁차게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부르며 조국 광복의 맹세를 거듭 다짐했다. 현전하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여러 관련자들의 회고가 있지만, 그중 당시 생도대 대장이었던 원병상(元秉常)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신흥무관학교 교가(校歌)>

1. 서북으로 흑룡태원 남의 영절의
여러만만 현원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것들 품에 다 품어
젓-먹여 준-이가 뉘-뇨

(후렴)

우리우리 배달나라의 / 우리우리 조상들이라
그네가슴 뚫는피가 우리 핏줄에 / 찰-찰찰 걸치며 돈-다

2. 장백산 밑 비단같은 만리 낙원은
반만 년래 피로 지킨 옛집이어늘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름 받-느니 뉘-뇨

(후렴)

우리우리 배달 나라의 / 우리우리 자손들이라
가슴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 지-옥의 첫-문이 온-다

3. 칼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 내어

새나라 세-울-이 뉘-노

(후렴)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두 팔 들고 고향쳐서 노래하여라 / 자유의 깃발이 뒀다.9)

노래 앞구절에서 원병상과 허은은 ‘흑룡태원(黑龍太原)’으로, 김재원은 ‘흑룡대원(黑龍大原)’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흑룡강 강변의 넓은 평야를 뜻하는 이 가사는 신흥학교로부터 동북과 서북 방향에 위치한 고조선의 옛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곡조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헨리 C. 워크의 작곡으로 널리 알려진 군가인 <조지아 행진곡> (Marching Through Georgia)을 차용한 것이다.¹⁰⁾ 이 곡의 작사자는 부민단 단장을 지낸 석주 이상룡(李相龍)이란 주장도 있지만, 사료적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¹¹⁾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집에 실려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항일투쟁 노래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의지를 다지고 긍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1910~1920년대의 대표적인 애국계몽가이며 독립운동가요라 할 수 있다.¹²⁾

9)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5, 20~22쪽 ;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6~87쪽.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거나 관련자로서 교가 가사를 남긴 또 다른 기록으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姜華麟의 전기를 펴낸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2~73쪽을 참조.

10) 노복순, 『항일가요의 가사 결합양상과 특성-〈조지아행진곡〉 활용 곡을 중심으로』 『동양학』, 2021.

1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2~73쪽. 학교의 교가인 만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의 교가도 작사한 바 있고 1913년부터 1917년까지 4년간 교장을 지낸 여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길태숙,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2008.

신흥무관학교는 단지 본과와 속성과 또는 군사과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 것만이 아니다. 1913년 3월 신흥강습소의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자, 교장 여준을 비롯한 교감과 운영진은 졸업생을 정단원으로 한 동창회 성격의 혁명결사로 그해 5월 6일 ‘신흥교우단(新興校友團), 1916년 말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으로 개명’을 조직했다. 신흥교우(학우)단은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한다.”는 설립취지에 맞춰 강령과 단시(團是), 단가(團歌)를 만들어 애창했다.

신흥교우단은 기관지로 『신흥교우보(新興校友報)』를 발간해 미국 하와이 교포들과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중 『신흥교우보』 제2호(1913년 9월 15일)가 발굴·공개되었는데,¹³⁾ 시사논단과 함께 시나 소설 등의 창작물이 실렸다. 그중 고주(孤舟)라는 필명으로 ‘실락원곡(失樂園曲)’이 실렸는데, 무려 20연에 이르는 장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낙원 같은 민족의 터전이 오늘날 ‘멸망의 지옥’에 이르러 잃었다는 비통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는 이상룡의 손부 허은이 기억하는 독립군가나 1929년 남만주 일대에서 조직된 조선혁명당의 당군인 조선혁명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계기화(桂基華)가 구술로 제공한 15절에 걸친 노래 가사나 거의 일치하였다.¹⁴⁾ 『신흥교우보』에 실낙원곡 시가와 계기화가 부른

13) 장세운,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신흥교우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신흥교우보』와 『신흥학우보』 원본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013에 게재되어 있다.

14) 崔滌周, 「식주 李相龍 서간도 始末記-孫婦 許銀여사에게 듣는다」 『정경문화』 246호, 1985년 8월호; 桂基華 제공, <실낙원>(『새 배달 노래 - 1920년대 재만주동포 애창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705~707쪽). 허은 여사가 기억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백두산 밑 푸른 언덕 길고 긴 동산 / 우리 민족 나고 자란 옛집이런만 / 오늘 와서 멸망의 지옥 이르니 / 아하 오호 돌아갈 곳 어디란 말가 / 동편에 뜬구름 바라볼 때마다 / 더욱 눈물 뿌리기 몇 번이던가 / 형제들과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표 1> 孤舟 작시 '실락원곡'(1913.9-위)과 재만주동포 애창곡(1929-아래) 비교

<p>구분 < 가보안 > 더 크게 써서 주야불침을 더 가려서 더 힘있게 장항하다 < > 더 힘있게 이루어 우리 맘도 쥐어와 같이 < > 더 힘있게 이루어 우리가 맘도 쥐어와 같이 < > 더 힘있게 이루어</p> <p>孤舟</p>	<p>주는 다한들 어느 누가 나를 위해 눈물 흘리랴 兄弟들과 妻孥들을 인의 괴역나 아슬하서 신을 이어간 지 뎡 홀을 바랄 때마다 더운 눈물 뿌림이 그 몇 번인가 滿洲로 運 밧진 배 가을 바람 거칠고도 많은 풀 쓸쓸도하다 한 잔도 밧진 배 가을 바람 거칠고도 많은 풀 쓸쓸도하다 그 때에 는 우리 반을 보듯 해와 들은 한복판에서 자막은 모든 밧진 배 가을 바람 거칠고도 많은 풀 쓸쓸도하다 꿈은 < > 푸른 언덕 계림동산은 / 우리 민족 나고 자란 옛집이어늘 주야불침을 더 가려서 더 힘있게 이루어 우리가 맘도 쥐어와 같이 < > 더 힘있게 이루어</p> <p>후략</p>
<p>백두산 밑 푸른 언덕 계림동산은 / 우리 민족 나고 자란 옛집이어늘 오늘 와서 멸망의 지옥 이르니 / 아하 우리 돌아갈 길 어디란말가 부모 잃고 길 잃은 이 내 신세는 / 배고프고 옷벗어 들에 우도다 이 몸이 무엇에 죽는다한들 / 어느 누가 날 위해 눈물 흘리랴 형제들과 처자들은 어찌되었나 / 아직까지 실목숨 이어가는지 동천에 뜬구름 바랄 때마다 / 더운 눈물 뿌림이 그 몇 번인가 만주리아 빛긴별 가을바람에 / 거칠고도 많은 풀 쓸쓸도하다 한옛적에 용장한 조상님들이 / 우리 위해 피흘린 곳 여기이니라 (후략)</p>	

두 시가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1929년 조선혁명군 계기화가 기억하는 노래는 최소 9절 이상 가사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13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결사단체인 신흥교우단 단원의 창작시 <실락원곡>은 이후 시가로 머무르지

처자들 어찌되었나 / 아직까지 쓴목숨 이어가는지.”
www.kci.go.kr

않고 많은 독립지사들의 기억과 노래를 통해 1920~30년대 만주 독립군의 항일가요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916년 말 신흥교우단은 신흥학우단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무렵 단시와 단가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흥학우단의 단시는 4·4조의 가사체로 되어 있다가 곡조를 차용해 노래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우고 즐겨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단원들이 부른 단시의 곡조는 알 수 없으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흥학우단 단시가>

1. 또또따따 기상나팔 그얼마나 새롭던가
조국의 얼 맞아드려 절치부심 칼을갈며
광복대업 달성코자 兄아弟아 金蘭結盟
우리단의 단결일세
2. 우렁차다 군가소리 山崩地折 하였어라
한번뛰어 강을건너 한번쳐서 왜적토평
그 기세 장할세라 越湯踏火 그기상은
우리단의 기백일세
3. 시베리아 遠東千里 거침없이 遍踏할제
野獸馬賊 다만나고 만주별관 雪寒風에
갖은고초 다겪어도 일편단심 나라회복
우리단의 정신일세
4. 백만적병 무찌르던 乙支蘇文 垂範대로
포연탄우 火海속에 東征西伐 육탄삼아
救國成人 하신故友 백절불굴 절개로세
이것이 곧 우리 團是.¹⁶⁾

15)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노래」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 심포지엄 발표문, 2021.12.9.

16) 이 곡은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 신동열이 제공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신동열(申東烈, 1899~1974, 평북 의주)은 1920년 고산자진

단시와 함께 <신흥학우단가>는 1916년 12월 26일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되었다. 곡의 가사는 1917년 1월 13일에 발행한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에 원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신흥학우단가>

祖上의 세우신 넷나라 어디메노
忠勇한 무리야 그 恩惠 껏까지 이즈라
四千春光 빛나소든 배달 내나라
自由의樂園을 지을者 우리가 안인가
종설을 받으며 0(실?)목숨 이여가는
二千萬 生靈의 人生길 引導할이 뉘노
굳은마음 참된 精誠 힘을 다하여
씩어진 民族의 새榮光 나타내이여라
우리의 마음을 練鍛코 큰힘길러
넷나라 억만년 새 基礎 鞏固케 세우세
大千世界 덥고남은 기운다하라
普天下 優勝의 冕旒冠 길히 빛나도다.

《신흥학우보》 원문의 제목 하단에 ‘수절가 곡조동(守節歌曲調同)’이라 표기하고 있어 이 단가는 당시 널리 알려진 <수절가>의 곡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절(守節)>이란 제목으로 수록된 <수절가>는 미국의 스테픈 콜린스 포스터가 1851년 작곡한 <스와니강>(Swanee River)이 그 원곡이다.¹⁸⁾ 단가의 작사자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군부에 이어 광복군에 복무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 5, 1988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해안, 2002, 339쪽). <원병상 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 10, 18~19쪽)에서의 신흥학우단 團是는 3절과 4절만 소개되어 있어 1·2절은 후일 덧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17) 『신흥학우단 단가(守節歌曲調同)』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1917년 1월 13일).

18) <守節> 『最新唱歌集-附樂典』 (국가보훈처, 해외한국독립운동사료14, 1996, 51쪽)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가르친 노래 중에는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만들어진 창가들이 적지 않다. 신흥중학교를 다닌 큰 오빠 허채(許釵)에게서 노래를 배운 이상룡의 며느리 허은이 기억하는 노래 중에는 창가인 <정신(精神)>이 있다.

<정신>

슬프도다, 우리 민족아! / 오늘날 이 지경이 웬일인가?

사천여 년 역사국으로 /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이 웬말인가?

(후렴)

철사주사(鐵絲紬絲)로 결박한 줄을 / 우리의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리소리에 / 바다가 끓고 산이 동(動)하겠네.¹⁹⁾

이 곡은 국권을 상실한 시기 국내에서 널리 부른 <정신>(또는 <감동가(感動歌)>)로서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노래집 『최신 창가집』에 <정신(精神)>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널리 알려진 노래이다. 모두 8절로 된 이 곡의 보표는 이 책 78쪽에 실린 ‘애국가와 동(同)’이라 표기하였으므로 그 곡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 합병 직후 이 노래를 ‘애국가’로 부를 정도로 만주의 민족학교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주요 향일가요로 보급하고 불렀다고 한다.²⁰⁾

19)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77~78쪽. 『최신창가집』에 실린 <정신>가 1절의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프도다 우리민족아 / 사천여년 력사국으로 / 자자손손 복락만더니 / 오늘날 이 지경 웬일인가 / 철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 우리손으로 끊어버리고 / 독립만세 장한 소리에 / 동해가변흥하야 육지가 되리라.”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감동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20)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자.

당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부른 군가에는 일본군의 군가를 차용해 가사를 바꿔 부른 노래도 있다. 교가와 함께 생도들이 배우고 자주 부른 <독립군>용진가²¹⁾가 대표적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독립군>용진가>

1. 요동만주 넓은뜰을 쳐서파하고
여진국을 토멸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이지란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2. 청천강에 수병 백만 쳐서 파하고
한산도에 왜적들을 격멸하옵신
을지공과 이순신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3. 만국회에 배를갈라 피를 뿌리고
육혈포로 만인중에 원수짜죽인
이준공과 안의사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4. 혈전8년 동매국을 쳐서파하고
장파윤과 화성돈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후렴)

나가세 전쟁장으로 / 나가자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²²⁾

2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해안, 2002, 72~73쪽.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 10, 32~33쪽)에서는 <독립군 용진가>로,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용진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22)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5, 32~33쪽에서는 1절만 소개되었다.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 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76~79쪽.

<(독립군)용진가>의 작사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노래의 원곡은 1908년 일본의 카미나가 료오게쯔(神長曠月)의 창가 <하이카라 부시>로서 그 악곡을 차용한 것이다. 이상준의 각종 창가집에 <권학(勸學)> 또는 <전진가(前進歌)>란 제목으로 달리 불리었다.²³⁾ 용진가의 가사는 이미 1917년 일제의 정보보고서에서 수차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²⁴⁾ 1917년 이전에 작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만주 독립군 진영에서 널리 부른 노래 중에 <조국 생각>(또는 <독립군은 거름>)으로 알려진 곡이 있다. “海蔘衛(블라디보스톡)와 서·북간도 등지에서 유행하는 창가”란 소개와 함께 《신한민보》 1918년 6월 13일에 1~4절, 6월 20일자에 5~7절 가사가 각각 소개된 이 노래는 실제 서간도와 북간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도 널리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²⁵⁾ 이 노래도 일본 군가의 곡조에 맞춰 당시 망명객의 심경과 다짐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경우라 하겠다.

<조국 생각>

1.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만
무엇을 바라고 예왔는가
자손의 거름될 이네 독립군
실 땅이 없지마는 희망이 있네
2. 국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사해에 티끌같이 떠다니네
이렇다 웃지 말라 유국(有國) 국민들

23) 노동은 편저, 『항일음악 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272~273쪽.

24) <秘受0392호>不穩者發見處分の件(함경남도경무부보고)>(1917.1.11.)

25)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민중식 제공으로 <독립군은 거름>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 자유의 활동할 날 있으리니
3. 한반도에 성장한 우리 민족아
하나님이 주신 독립석하에
당당한 자유생활 끈혀진지
사변이 말서 지나 갔도다
 4. 해외에 나선 우리 동포야
괴로우나 질거우니 우리 마음에
와신상담 잊이말고서
원수 갑홀 준비하여 봅시다
 5. 두만 건너를 살펴보오니
금수강산은 빗을 일었고
신성한 단군자손 우리동포는
저놈에 철망에 걸여 잇고나
 6. 서비리아 찬바람에 이고생함은
한반도 너를위함이로다
너와 나와 서로 만나볼때는
독립년 밖에 다시 없고나
 7. 높이솟은 백두산아 내말드러라
저것너 富士山부터 밀어라
우리의 창년이 지진되여서
富士山 번질날 멀지 안토다
 8. 조국을 일코 가던 영혼은
턴당(천당)도 도로혀 디옥(지옥) 되리니
이말을 잊이말고 분발하면
한반도 강산회복 하리라.

이 노래는 독립운동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온 독립군의 비장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민족의 슬픈 현실을 표현하면서도 '자손의 거름'될 독립군으로서 조국독립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²⁶⁾ 노래의 작사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원곡은 일본군가인 <전우(戰友)>로서 1905년 일본의 마시모 히센(眞下飛泉)이 작사, 미요시 카즈오키(三善和氣)가 작곡해 러일전쟁 이후 유명해진 노래를 가사만 바꿔 부른 것이다.²⁷⁾ 이 노래는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에서 편찬한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 널리 불리게 되었다.²⁸⁾

1919년 3월 국내 전역은 물론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에 쫓겨 압록강을 건너 망명한 많은 젊은이들이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로 찾아 들었다. 당시 만주로 망명하던 참담함과 새로운 문무를 익혀 독립전쟁에 나서고자 하는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는 <도강가(渡江歌)>가 있다.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이 일부 기억하는 이 노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도강가>(일명 <3.1운동가>)

1. 일천구백이십오년 삼월 일일은

- 26) 《신한민보》 1918년 6월 13일자(3면)에는 1~4절까지, 6월 20일자(3면)에는 5~7절까지 소개되었다.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5~76쪽)과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8~89쪽)에는 4절까지만 소개되어 있다.
- 27)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84~87쪽.
- 28) 1914년 광성학교에서 펴낸 『최신창가집』에 실린 <조국생각>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만 / 무엇을 바라고 이에왔는가 / 자손의 거름될 이네 독립군 / 설 땅이 없지마는 희망이 있네
2. 국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 하해를 티끌같이 떠다니네 / 잃었다 웃지마라 자유국민들 / 자유회복 할날이 있으리라.” 중앙아시아 고려인 노래를 연구해 온 김보희는 카자흐스탄에서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마는>이란 제목으로 악보를 채보하였고, 북한에서 펴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 4)』 (평양:예술교육출판사, 1999)에서는 <독립군가>란 제목으로 실렸다고 밝혔다(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36~37쪽).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이니
연년이 이날은 돌아오건만
나의 목적 달하지 전 못잊으리라

2. 삼천리 강산은 나의 집

부모형제 친구들 다 이별하고
한줄기 눈물로써 압록강건너
한숨으로 부모국을 하지하였네

3. 님을두고 떠난 외로운 내몸

간곳마다 고생이오 학대로구나
동포야 묻노니 내죄뿐이라
네죄도 있으리라 같이 나가자

4. 西伯利亞 찬바람에 몸을 날리며

스슬랜드 동산에 눕기도하고
蒙古리아 沙漠도 밟아들보며
亞羅比亞 벌판에도 거니리로드.²⁹⁾

이 노래는 1927년 《조선일보》에 <만몽답사(滿蒙踏査)>라는 연재코너를 집필하던 이종정(李鍾庭)이 만주 길림을 여행하던 도중 기차 안에서 들은 것이라며 전문을 소개한 것이다.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와 곡조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1910~20년대 망명객들에게 널리 불리었으며, 이후 <3·1운동가> 또는 <3·1절노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³⁰⁾

1919년 3월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의한 결전의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청년들이 입학의 지

29) 李鍾庭, <만몽답사> 《조선일보》1927년 11월 10일자; 허은 구술·변창에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9쪽에서는 “사천이백 오십이년(서기 1919년) 삼월 일일은,, 못 돌아오리”로 다소 가사를 달리 기억하고 있다.

30) <도강가>는 1982년 광복군가보준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 <3·1운동가>란 제목으로, 1995년 중국 요녕성에서 전정혁이 수집해 정리한 『조선족항일투쟁노래 선집』에는 <압록강을 건넌 노래>로 소개되었다.

원하였다. 이 무렵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일본군 장교였던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이 동지 김광서(金光瑞)와 함께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하였다. 이에 신흥무관학교는 무장투쟁을 수행할 군대양성을 목적으로 합니하 본교에 이어 분교로 통화현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대두자(河東大肚子) 등 3곳에 군사기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즉 합니하 본교와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분교에는 3개월의 일반훈련과 6개월 과정의 후보훈련을 실시하였고, 유하현 고산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항일전쟁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짐에 따라 고등군사반과 초등군사반 모두 3개월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1920년 1월 당시 통화현 합니하 본교의 학생수가 97명이며 고산자의 학생 수가 약 120명, 유하현 쾌대모자의 학생 수가 10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교관이었던 원병상은 한 학년 학생 수가 18세 소년부터 50세 노년 학생까지 600여 명 규모였다고 증언하였다.³¹⁾

3.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성황을 이루던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6월경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일제의 독립군 토벌작전과 만주 침략에 노골화되었고, 마적단의 잦은 습격과 중국 관헌들의 방해도 가중되었기 때

31)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5, 27~29쪽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장군』, (주)문화과학사, 1995, 42~45쪽.

문이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로 크게 패전한 일본군이 시베리아와 나남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와서 협공을 꾀하려 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득이 신흥무관학교 본부와 학생들을 백두산 근거지로 이동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그해 10월 청산리에서 크게 패전한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인촌의 비무장 민간인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경신참변’을 일으켜 많은 애국지사들이 길림성·흑룡강성으로 흩어져야 했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북상한 대한독립군단도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현재의 스보보드니)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화를 겪어야 했다. 러시아 혁명군의 배신으로 인해 동족간의 살육전을 벌여야 했던 이른바 ‘흑하사변’으로 인해 대한독립군의 피해는 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³²⁾

자유시에서의 참변으로 독립군의 주력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여준은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규합하기 위해 새 무관학교를 만들려 했다. 여준은 일제와 러시아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임시정부의 처사에 반발하여 그의 개조를 요구하는 한편,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발송한 터였다. 나아가 폐교되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아예 길림시 액목현(額穆縣) 황지강자향(潢地崗子鄉)으로 옮기기로 하고, 1922년 초 액목현 대황지(大荒地, 현 蛟河市 남강자)에 검성학장(儉成學莊, 혹은 검성학당, 후에 검성중학으로 개칭)을 세우고 교장에 취임했다. 여준은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세운 이 학교에 석주 이상룡 일가를 모신데 이어 가장 믿음직한 제자인 오광선을 불러 체육선생으로 삼았다.³³⁾ 여준과 오광선은 이곳을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독립군

32) 오광선, 「만세기의 증언」 《조선일보》 1964년 3월 27일;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권』, 국학자료원, 1980, 284쪽.

33)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2010, 94쪽; 지

기지로 삼기위해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 전략을 세웠다.

“학당 창건 초기에 여준이 교장 겸 영어과를 가르치고 원 신흥무관학교 군사교관이었던 오광선이 체육교원으로 있었고, 오일선과 박일준 등이 기타 학과목 교수를 맡았다. 학생 수는 70~80명이었다. 학당에는 기숙사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였다.....처음 대황지에 학교를 지을 때 3채에 10여 칸이 달린 집을 지었다. 그후 하북산기슭의 사황지(지금의 신안툰)로 옮겨가 넓은 집 15칸을 사고 또 일부 간의건물을 지어 교실(3개)과 학생기숙사, 교무실로 썼다. 비록 학교조건이 아주 보잘 것 없었지만,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 및 학습열성은 아주 드높았다.”³⁴⁾

정의부의 군사위원장인 지청천의 가족도 길림성 1924년 액목현 황지장자로 이주했다. 이후 장남 지달수(池達洙, 1909~ 1969)가 검성중학을 졸업했으며, 딸인 지복영(池復榮, 1920~2007)도 이 학교 부속 소학교를 다녔다. 지청천과 오광선 가족은 검성학교를 ‘ㄱ’자로 마주 볼 수 있는 건물에 살았다.

지복영의 회고에 의하면, 검성중학교는 둔전제 방식으로 운영했기에 교사와 학생 구분 없이 모두 들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오전에 학과 공부에 오후에 농사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군사교육을 받았다. 비록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총 못지않게 이용하면서 군사지식을 터득하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했다.”고 한다.³⁵⁾

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3~44쪽.

34) 김동림, <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연변인민출판사, 1995), 479~480쪽 ; 허은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103~104쪽.

지복영은 검성중학에서 있던 8월 29일 국치일 행사도 기억했다. 국치일은 한인 교포들이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정신을 분발해 기필코 독립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므로 모두 음식을 하지 않고 굶었다고 한다. 낮에는 운동장에서 기념식도 거행하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평소에 연마한 군사교육으로 분열식도 하고 격검(擊劍)도 하여 교포들을 고무했다. 국치일에 부른 것으로 알려진 <국치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국치의 노래>

1. 경술년 추팔원 이십구일은
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라
갈수록 종설움 더욱 아프다
2. 조성의 피로써 지킨 옛집을
백주에 남에게 빼앗기고서
처량히 사방에 표랑하오니
눈물을 뿌려서 조상 하여라
3. 어디를 가든지 세상사람은
우리를 가리켜 망국노라네
천고에 치욕이 예서더할까
후손을 위하여 눈물 뿌려라
4.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때니
아픔과 슬픔을 항상 머금고
복수의 총칼을 굳게잡고서
지옥의 쇠문을 깨뜯지어다.³⁶⁾

35)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39~42쪽.

36)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5쪽;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8쪽. <국치의 노래>는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국치추념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국치일 밤에는 중학교 강당에서 연극을 했다. 입추의 여지없이 뻑뻑하게 사람들이 모였다. 연극 내용은 독립운동을 하러 집을 떠난 아버지를 어린 아들 형제가 찾으러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배우와 관객들이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³⁷⁾ 후일 <국치추념가>로 제목이 바뀌어 불린 <국치의 노래>는 1908년 문인 최남선(崔南善)이 스코틀랜드의 민요 악곡에 한글가사를 붙여 만든 <경부철도(京釜鐵道)> 노래의 선율을 차용하고 리듬 형태를 바꿔 만들어진 것이다. 이 노래는 1872년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에 의해 창작된 <호밀밭 사이로>(Comin' thro' the Rye)라는 민요악곡을 차용해서 만들었다. <경부철도> 노래는 1914년 중국 서간도 망명객들이 세운 민족학교인 광성중학교에서 편찬된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록되어 널리 불리운 상황이었기에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³⁸⁾

학생들은 등하교하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총으로 쏘 죽이는 즉흥 연극을 하기도 했다. 왜놈이 거꾸러지면 ‘만세 만세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작대기에 수건을 매달아 태극기를 대신했고, 또 막대기를 총대 삼아 둘러메고서는 줄을 지어 <용진가>·<독립군가>·<충무공 노래>, 나아가 <신흥무관학교 교가>까지 소리 높여 부르면서 행진했다고 한다.³⁹⁾

검성학교에서도 10월 3일 개천절 날이나 체육대회 때에는 큰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네에서 떡과 설탕을 사오고 운동장에 모여 먹으며 놀았다. 체육운동 때마다 목청껏 불렀던 응원가에도 독립투쟁의 의지와 열망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안창호 선생이 작

37)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8~49쪽.

38)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76~79쪽.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실린 <경부철도>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렁차게 토하난 汽笛소리에 /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 빨리부는 바람에 형세같으니 / 날개가진 새라도 못따르겠네.”

39)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77~78쪽.

사한 <소년남자가>이다. 검성학교에 대해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許銀)도 검성학교를 다닌 오빠들을 따라 배우며 부르던 이 노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 이 곡은 1914년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는 <야구(野球)>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작사는 안창호(安昌浩)이며 서양 음악가인 이상준(李尙俊, 1884~1948)이 작곡하였다.⁴⁰⁾

<야구>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황황한 대한혼 발휘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만인 대적 연습하여
후일 공훈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이 아닌가.⁴¹⁾

허은은 또 당시 학생들이 부른 군가로 제목을 알 수 없는 다음의 곡을 기억하고 있다.

하늘 밑의 모든 백성 앞을 부를 때

40)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서는 <야구>로, 1916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의 『애국창가』에서는 <소년남자가>로, 1918년 국내에서 이상준에 의해 발행된 『최신창가집전』에서는 <운동회>가로 수록되어 있다(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집, 2019 참조).

41)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2010, 103~104쪽. 1914년 광성학교에서 펴낸 『최신창가집』에 실린 <야구>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 애국의 정신을 발휘하여라 /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나라에 /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후렴) 만인대적 연습하여 / 후일 전공 세우세 / 절세영웅 대사업이 / 우리 목적이 아닌가.” 이 곡은 1982년 광복군가 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소년행진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파도같이 몰려온들 그 무엇이랴
나가라 싸워라 대승계 월계관
내게로 돌아와 싸워라 싸워라
오전(五戰)과 육전(六戰)의 모든 주인은
분분함이 백운심처(白雲深處) 소낙비로다
신체를 발육하는 동시에
경쟁심 주의를 양성하려고
공기 좋고 구역 넓은 운동장으로
활활 나는 듯이 빨리 나가세
만인(萬人) 대적(大賊) 연습하여 / 후일 전공 세우세.⁴²⁾

이 군가는 후일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며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인 김좌진(金佐鎭)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승리의 행진곡>의 가사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 <승리의 행진곡>은 1897년 만들어진 일본 군가로 <군함행진곡>(烏山 啓 작사, 瀬戶口 藤吉 작곡)이 원전이다.⁴³⁾

1. 압록두만 홍안령에 발해의 달에
길이길이 밟았던 그때 그리워
거센 바람 높은 소리 큰 발자취로
거침없이 위아래로 달려가누나
(후렴)
나가라 싸워라 대승리 월계관/내게로 오도록 나가 싸우라
나가라 싸워라 대승리 월계관/내게로 오도록 나가 싸우라
2. 잘즈른 익힌 힘줄 벌떡거리고
질질 끓는 젊은 피는 넘치려누나

42)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7~88쪽.

43)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38쪽.

한뼘되재 비긴달에 칼을 뽑을제
 바위라도 한번 치면 부서지리라
 3. 하늘 아래 모든데서 악을 뿌리며
 조수같이 밀려온들 그 무엇이랴
 싱긋 웃고 무쇠 팔뚝 번쩍일 때에
 구름속의 선녀들도 손뼉치리라.⁴⁴⁾

검성중학교는 1924년 가을 30여 명의 졸업생을 제1회로 배출하였다. 그러던 중 마적단의 습격과 추위,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마적들은 한인촌에 자주 습격해 찾아와 쌀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을 협박하였고, 안 주면 폭행과 납치를 서슴치 않았다. 독립군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쳐들어오면 할 수 없이 쌀을 퍼주었다고 한다. 검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했던 오광선의 차녀인 오희옥은 당시 일본군과 마적의 침탈에 맞서 학교에 총구멍도 만들어 냈다고 한다.⁴⁵⁾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검성학교는 점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1927년 ‘청년강습소’로 개칭되었다. 강사진도 소련과 중국 관내, 조선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지식인들이 초청되어 정치경제학과 혁명사, 유물사관 등을 강의하였다. 그러자 교장인 여준과 교관 오광선 등은 더 학교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여준과 지청천·홍진 등과 함께 길림성 아성현(阿成縣)의 대석하(大石河)로 이주하였다. 학교에 남은 공산

44) 광복군가보존회, 『광복의 메아리』, 1982, 64쪽.

45)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쌀 한말씩 퍼주고 그랬어. 학교 마당에 집 같은게 있어서 거기다 총구멍을 다 해놨어. 일본군이나 마적이 들어오면 대항하려고. 거기가 검성중학교야. 거기 교실이 작아. 나는 공부하러 거기를 가고 그랬어. 우리 언니도.”(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자 인터뷰』 『용인향토문화연구』 5집, 2003 ;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 『용인향토문화연구』 6집, 2006 ; 박숙현, 『마지막 증인』, 북스토리, 2019 참조).

주의자들은 각지에 청년과 농민들로 군중조직을 묶어 소책자를 찍어 나누어줌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적극 선전하였다.

김성중학교 학생들은 늘 여러 마을에 내려가 야학교를 꾸리고 강연회를 열며 문예공연과 기념활동을 가지고 《여성해방가》, 《반일가》, 《무산아동가》, 《소년대행진곡》 등 혁명가곡을 배워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생동 활발하고도 군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반제반봉건적혁명 사상을 선전하였다.⁴⁶⁾

1920년대 후반 당시 김성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부른 항일 노래인 《여성해방가》·《반일가》⁴⁷⁾·《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⁴⁸⁾등의 작사와 작곡자를 비롯해 가사의 내용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김성학교는 1928년말, 중국 당국의 ‘교육권 회수’ 정책에 따라 부득이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김성중학을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항일 독립투쟁의 선두에 나서 향후 지역의 주요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항일전쟁에서 활약한 권태산과 한일광 등이 대표적이다.

46) 김동립, <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연변인민출판사, 1995), 480~481쪽; 원시회,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6~728쪽.

47) <반일가>로 채보된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전토 인민들이 무장하여라 / 모순 많은 제국주의 강도놈들을 / 일차대전 피비린내 가시기도 전 / 이차대전 대도살을 개시한다.”(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5, 54쪽).

48) <여성해방가>와 <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이란 제목의 노래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연변인민출판사, 2015)에서는 <여자해방가>로, <소년단행진곡>으로 각기 다른 제목으로 채집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맺음말

1910~20년대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의 졸업생과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당시 민족지사들이 만들고 부르며 지킨 항일노래를 추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의 5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는 1910년 손봉호가 필사한 창가집의 12장에 실린 애국가를 가사만 조금 달리했으며, 곡조는 <올드 랭 사인>인 것으로 보인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조지아 행진곡>을, 신흥학우단 단가는 <스와니강> 원곡을 차용하고 <수절가>의 가사를 단의 나라사랑·독립정신을 담아 바꿔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독립군가 중에는 일본 창가의 곡조를 차용해 애국적인 가사로 바꾼 노래도 있다. <(독립군)용진가>는 <하이카라 부시>를, <조국생각>은 군가 <전우>를 차용했는데, 1914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 실린 이 노래를 가사만 시대상황에 맞게 애국 계몽적 내용으로 바꿔 불렀다.

셋째,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망명객들이 많이 불렀는데, 그중 <3·1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노래의 원전은 <도강가(渡江歌)>임을 알 수 있다. 이 곡의 가사는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에 실려 있다.

넷째, 1920년 6월 일본군의 침탈로 폐교된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하기 위해 여준·오광선 등이 액목현 대황지에서 검성학교를 창설해 개교했는데, 학생들은 이 곳에서도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비롯해 <용진가>·<독립군가> 등을 자주 불렀다. 특히 학생들이 부른 항일노래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치일에 부른 <국

치의 노래>, 운동회 때 부른 <야구>, 행진 군가인 <승리의 행진곡>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섯째, 1927년 검성중학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청년강습소’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말 중국 당국에 의해 폐교되고 말았다. 1920년대 후반 당시 검성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부른 항일노래로는 《여성해방가》·《반일가》·《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 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노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저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해안, 2002.

<http://uci.or.kr/G701:B-00091470416@N2M>

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5.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http://uci.or.kr/G701:B-00047961563@N2M>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http://uci.or.kr/G901:A-0006562708@N2M>

_____,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지청천장군』, (주)문학과지성사, 1995.

<http://uci.or.kr/G901:A-0008502119@N2M>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013.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5362982@N2M>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http://uci.or.kr/G701:B-00099013229@N2M>

2. 논문

길태숙, 「재만조선인 항일투쟁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2008.

<http://uci.or.kr/G704-001255.2008..144.007>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http://uci.or.kr/G704-000884.2008.43..003>

김수현, 「자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 82집, 2021.

<https://doi.org/10.17320/orient.2021..82.25>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https://doi.org/10.15799/kimos.2011..40.002>

노복순, 「항일가요의 가사 결합양상과 특성-<조지아행진곡> 활용 곡을 중심으로」, 『동양학』, 2021.

<https://doi.org/10.17320/orient.2021..84.153>

박성순, 「석주 이상룡의 『만주기사』 분석을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동양고전연구』 67, 201.7

<https://doi.org/10.16880/SEC.2017.67.06.173>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집, 2019.

<https://doi.org/10.17254/jemri.2019.23.1.005>

신광호, 「항일전쟁시기 중국조선족 항일가요의 정서연구」,
『국악교육』 33, 2012.

<http://uci.or.kr/G704-SER000002235.2012.33.33.005>

안병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
민족문화』 39, 2011

<http://uci.or.kr/G704-001560.2011..39.004>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노래」, 『새로운 관점으로 보
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 심포지엄 발표문,
2021.12.9.

장세윤,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
교」, 『만주연구』 24, 2017.

<https://doi.org/10.22888/mcsa..24.201712.89>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
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Abstract)

The anti-Japanese song at Shingheung Military Academy and Gumsung school

Kim, Myung-seob

The Graduates of Shinheung Military Academy(新興武官學校) and Gumsung School(儉成學校), the cradle of the Manchuri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1910s and 20s, made many anti-Japanese songs, and they sang, kept them together, and rais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e 'Korean national anthem(愛國歌)' sung by Shinheung Military Academy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yrics of the Korean National anthem in Chapter 12 of the Patriotic Song Book in 1910, and the tune seems to be "Auld Lang Syne." Singheung Military Academy song borrows 'Marching Through Georgia', and Shinheung-student unit price borrows 'Swanne River'.

Among the independent military songs, there is also a song that borrowed the tune of the Japanese Changga(唱歌) and changed it into patriotic lyrics, which changed the lyrics of the song from Gwangseong School's "The Collection of the Latest Changga" in 1914. As an example, '(Independent Army) Yongjingga(勇進歌)' borrowed the Japanese Changga, and 'The Thought of Homeland' borrowed the tune of 'Fallow Soldier(戰友)', a Japanese soldier, and sang it as an anti-Japanese song. Since the March 1st Movements in 1919, the original copy of the song, known a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s Song(3·1運動歌)', had been called by many exiles, indicating that the 'Dogang song(渡江歌)' i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However, Shinheung Military Academy was inevitably closed in June 1920 due to the Japanese army invasion. Since then, Yeojun(呂準), who served as the principal established and opened Gumsung School to

succeed Shinheung Military Academy. Students at Geomseong School often sang ‘Shinheung Military Academy School Song’ and ‘Songs of Independence Army’ here. In particular, among the anti-Japanese songs sung by students, ‘Song of National Humiliation’ expressed on the indignity of being lost the country by Japan in 1910, "Baseball" sung on sports day, and ‘March of Victory’ sung as a military song of the independent army.

Keywords : Shingheung Military Academy, Gumsung school,
anti-Japanese song, patriotic song,
songs of independence army

